

'꿈, 청소년의 달을 있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추진 모색

제14회 무주군 청소년 문화축제 성료... 공연·체험·전시·먹거리 등 다채

‘제14회 무주군 청소년문화축제-꿈, 청소년의 달을 있다’ 행사가 지난 1일 무주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와 ‘청소년문화축제’를 통합해 진행함으로써 그 의미와 규모를 기원 눈길을 끌었다. 행사는 지역 청소년과 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과 전시 부스(청소년 동아리 ‘애니고수X어반스케치’, 성인문화교육 시화전 ‘우리할매 글잔치’) 공연 등이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특히 ‘매직페이퍼’, ‘아크릴 셰이커’, ‘머그컵 만들기’, ‘달고나 뽑기’ 등의 창의 체험 부스와 ‘1분 초상화’, ‘스탠실 해나’, ‘쁘띠 꽃다발’, ‘나무놀이공원’ 등 전문 체험 부스가 인기를 끌었으며, 청소년 동아리 ‘바리스타의 꿈’과 ‘집콕디저트’, ‘그림이’도 관심을 모았다. 전시 부스에서 진행된 ‘우리할매 글잔치’는 지역 내 성인문화교육 수강생들이 전국 성인문화교육 시화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볼 수 있었던



‘제14회 무주군 청소년문화축제-꿈, 청소년의 달을 있다’ 행사가 지난 1일 무주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됐다.

기회로, ‘다시 또 엄마’ ‘이정표’ 등 진심 어린 표현으로 완성한 작품들이 전시돼 세대가 어우러지는 따뜻한 교류의 장이 됐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무주군가족센터,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등 지역 유관 기관들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으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어묵, 소시지, 바나나 떡, 솜사탕, 아이스크림 등 먹거리 부스도 마련돼 축제의 흥을 돋웠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된 2부 ‘쌍백합창 소년문화제’에서는 본선에 오른 10개 팀의 노래, 댄스, 악기연주 부문 경연과 기념식이 진행돼 열기를 더했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 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청소년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기념식에서는 무주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청소년들이 청소년현장을 직접 낭독하며 축제의 의미를 공유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명실상부 ‘자전거 성지’ 자리매김

제3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무주메디오폰도대회 성료

제3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무주메디오폰도대회가 지난 1일 개최됐다. 대한자전거연맹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자전거연맹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후원한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선수들은 이날 예체문화관을 출발해

당산삼거리, 설천면 소천교, 무풍 원평삼거리, 무주리조트삼거리, 라제동문, 무주교차로 등을 거쳐 국민체육센터까지 95.6km를 달렸다. 이 대회는 비경쟁 코스 원주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인 무주를 알리고 자전거 타기 붐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2012년부터 무주그라운드대회를 시작으로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 챔피언십 대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 대회 등 다수의 대회를 개최하며 명실상부한 ‘자전거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의회 고령친화도시 구축 방안 연구용역 보고회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지난 10월 31일, 의원연구단체 ‘진안군 고령친화도시 구축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김민규)’가 추진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진안군의회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진안군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직면함에 따라, 어르신이 안전한

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나라살림연구소는 △진안군 고령화 현황 분석, △국내외 고령친화도시 우수사례 비교, △교통·주거 등 분야별 개선 과제, △지속가능한 행정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보고회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진안군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했으며, 의원들은 고령층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생활 편의 인프라 확충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진안군의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과 조례 등에 적극 반영해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장수한우 미래비전 창출 워크숍 개최

장수군은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장수한우 미래비전 창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등급 출현율 하락, 고등 등록우 감소, 비육우 중심 정책의 한계 등으로 한우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장수한우의 새로운 도약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관내 한우농가 300여 명과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최한주 군의회위원장,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등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워크숍은 먼저 김경용 장수군 축산위생과장이 ‘장수군 한우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훈 전북도청 축산과 팀장이 ‘한우산업의 미래비전과 장수군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홍규 건국대 교수는 ‘고능력우 사양관리 및 장수한우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학교 전북대 교수의 ‘돈백재탄소 장수한우’, 이타비이오백 정연길 박사의 ‘장수형 종모우 개발전략 및 농가보급 계획’, 고창군한우협회

/장수=고관호 기자



김문석 지부장의 ‘한우경영 우수사례 발표’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지며 현장의 관심을 모았다. 각 발표를 통해 장수한우 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이 심도 있게 제시되었으며, 참석 농가들은 한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천 전략을 공유하며 발전 의지를 다졌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장수군은 장수한우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저탄소한우 산업지구 구축, 스마트 축산 기반 확산, 우량안소 생산 장려금 지원과 우량정책 지원 등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장수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 2026년 농기계 임대사업 총사업비 21억원 확보

진안군은 2026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0억 5천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비 7억 5천만원을 투입하고 성수면과 용담면에 새로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새로 건립되는 임대사업소는 단순한 임대 기능을 넘어 농기계 현장 교육장

으로도 활용되어,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한 안전한 기계 조작과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국비 예산 2억원을 확보해 농작업 대형 민간사업단 2개소를 추가 지원하고, 노후화된 농기계를 대체하기 위한 국비 1억원을 확보하여 농기계 6종, 총 21대를 신규 구입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장수군은 11월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4주간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기간은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점적호스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불법소각과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읍·면별 배출 일정은 △장수읍과 장계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배출 가능하며, △산서면은 월요일 △번암면은 화요일 △천천면은 수요일

일 △계남면은 목요일 △계북면은 금요일로 정해졌다. 배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면 된다. 배출 방법은 콘포비닐, 비료포대, 퇴비포대 등 소각이 가능한 영농폐기물은 마대나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수료가 50% 감면되며, 부직포·반사필름·차광막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콘포로 묶어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장수군은 지난달 30일 장수군청 재난안전상황실과 한누리전당에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재난 대응체계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국가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이다. 이날 훈련에는 장수군청을 비롯해 장수경찰서, 장수소방서, 7733부대 2대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주)KT,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14개 기관·단체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 훈련은 가스폭발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대형 화재와 지반 침하로 인한 싱크홀 발생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병행하며 진행됐다. 참여 기관들은 인명구조, 화재 진압, 긴급복구, 주민 대피 등 각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했고, 실제 재난에 준하는 현장감 속에서 신속한 초동조치와 협업체계를 실습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중점사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상황실과 현장 간 실시간 교신과 정보공유를 원활히 진행함으로써 유관기관 간 신속한 지휘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소방서, 11월 한 달간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범도민적인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1월 한 달 동안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조심 강조의 달’은 매년 11월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되는 화재예방 중점 기간으로, 겨울철 난방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간 동안 장수소방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국민 참여형 안전퀴즈 이벤트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